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 조합원·유관기관에서 서울시장상 등 표창 수여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종구 총무아트홀에서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해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서병기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 회장, 조정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 이사장, 흥사룡 경기도인쇄기술협회 회장 등 500여명의 인쇄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총회에서 남원호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조합은 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쇄기획·디자인 기기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인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인쇄가격 현실화를 위해 한국물가협회와 함께 ‘인쇄 공정별 요금’을 발표하고 자동 견적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업계의 생존에 근간이 되는 인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 인쇄물 구매 담당자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이사장은 조합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쇄를 사랑하는 사람들네모(주)와 연계해 조합원사 수익성 제고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유치 ▲인쇄박물관 건립 준비 ▲조합원 특별보증 및 대출지원 사업 확대 실시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모범조합원 및 유관기관 포상(26명), 모범사원 포상(8명) 등이 이뤄졌으며, 201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잉여금처분(안),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추천횟수 및 연간계약한도 승인, 조합기능활성화 기금 사용, 이사회 위임 사항, 조합원 법정탈퇴 결의 등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신임 감사에는 최영식 한양애드 대표, 김중식 제이아트 대표가 선임됐으며, 연합회 출석 대의원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했다.

표창 및 감사패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장상 이충원 선문사 대표, 조정석 (주)대원문화사 대표
이사 이사장상 권순기 한국아그파산업(주) 대표이사, 김광권 한국 제지(주) 부사장, 김철운 한국물가협회 회장 중소기업청장상 김중식 제이아트 대표, 김현석 월계인쇄(주) 대표이사, 장세훈 송죽문화사 대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상 김종묵 예성디앤피&소프너지 대표, 신광순 경일프린팅 대표, 이성근 (주)청우인쇄컴 대표이

사 중앙회장상 배동석 광성옵셋 대표, 이능형 (주)명진씨앤피 대표
이사, 이경진 광명당인쇄 대표, 박상준 (주)가보특수지 대표이사
연합회장상 이대현 대한정보인쇄(주) 대표이사, 양재광 삼보인쇄
사 대표, 조광희 선명인쇄(주) 대표이사, 김승익 (주)성문아이티피
대표이사, 송희정 차장·강건우 대리(농민신문사 간행사업부),
김준엽 과장(국민은행 총무부)